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7월



1.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급과 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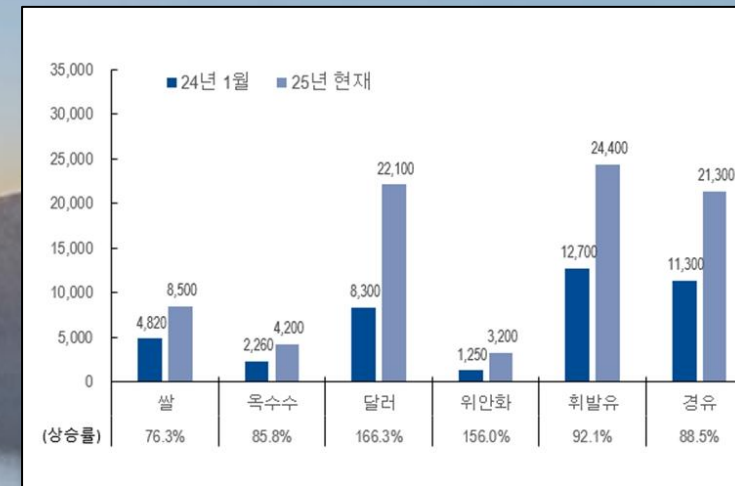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농업 정책 개편을 통해 식량 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력갱생의 기조 속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와 자본재 투입은 제한적이어서 그 성과도 제한될 전망됩니다. 개혁 개방을 통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북한의 국정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만 이민위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의 제3차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파병은 공병·군사건설인력을 중심으로 6천여 명 규모로 알려 집니다. 또다른 형태의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이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소통 창구 복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대의 통일 유훈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과 북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위정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독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북한	11	인도
2	소말리아	1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3	미얀마
4	리비아	14	말리
5	수단	15	중국
6	에리트레아	16	몰디브
7	나이지리아	17	이라크
8	파키스탄	18	시리아
9	이란	19	알제리
10	아프가니스탄	20	부르키나파소

(자료: 한국외교부 선교교회)

6.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과 강제북송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개된 강제 북송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적발된 탈북 신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사역을 하시다 체포된 백모 선교사님도 1년 넘게 억류 중에 있습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북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시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시행 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늘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더욱 정밀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엄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북한의 지하교회가 외부와의 연락 과정에서 적발되어 적어도 수십여 성도가정이 큰 피해를 입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주민 통제와 아울러 외부세계와의 소통과 연락을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한 당국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모든 사역이 보안에 유의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